



경기에 앞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는 안치홍(오른쪽)과 조영훈.

## 실책으로 놓친 4강 ... 호랑이, 수비 또 수비

### KIA 사실상 캠프체제 전환

### 내야진 강도 높은 훈련 예고



캠프체제로 전환한 '호랑이 군단'이 수비 잡기에 나선다. 사실상 4강 탈락이 확정된 KIA 타이거즈는 가을 잔치 대신 가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오기나와에서의 강도 높은 마무리 캠프를 예고한 가운데 훈련도 '캠프 시스템'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장 출근 시간을 앞당긴 KIA는 수비 훈련의 비중을 늘렸다. 야수진의 수비훈련은 물론 투수진도 지난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수비훈련을 소화하기도 했다. 시즌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올 시즌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수비를 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특히 내야진의 강도 높은 수비

훈련이 예고되고 있다. 안치홍과 김선빈, 꼬꼬마 키스톤이 그 중심에 있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올 시즌 전연단 디구장으로 바뀌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수비 문제점이 노출됐다. 인조잔디의 경우 크게 어려운 바운드의 타구가 나오지 않는데 천연잔디는 변수가 많다"며 "바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놓고 안치홍이 수비에 대해 새로운 성장 과정을 겪고 있다. 핸들링에도 약점을 보여 그 부분에 대한 얘기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김선빈의 경우 준비 동작에서의 슬관 바꾸기라는 속제가 주어졌다. 뜬공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수비 폭이 많이 넓어졌지만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 준비 동작으로 땅볼 타구에 대한 대처가 늦다는 평가에서다.

20일에도 김선빈은 마츠야마를 수비 코치와 함께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 수석코치는 "타격은 타고난 부분이 크지만 수비는 훈련의 결과다. 수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인 훈련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동열 감독도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하겠다"며 선수단에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다. 현지 경기장 일정상 10월16일께를 출국 날짜로 잡은 KIA는 45일 가량의 장기간의 마무리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재활중인 최창남, 유동훈 그리고 최희섭은 참가하지 못하지만 서재응을 필두로 해서 주축 선수들이 열의 없이 모두 오기나와로 향한다. 부임 이후 첫 마무리 캠프였던 지난 시즌에 55명의 대규도 선수단을 꾸렸던 선 감독은 이번에는 40~45명으로 캠프조를 꾸릴 예정이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작된 수비 잡기의 첫 단계, 오기나와에서 심화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승점 3점을 확보하라”

광주 FC, 내일 대구와 K리그 32 라운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안정환 팬사인회도

‘대구 킬러’ 광주가 승점사냥에 나선다. 광주 FC가 23일 오후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 FC와 3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앞선 4번의 승부에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는 대구전에서 승점 3점을 얻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K리그 첫 승의 제물도 대구였다. 창단 첫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3-2 펠레스코어로 짜릿한 승리를 가져왔던 광주는 두 번째 원정 맞대결에서도 2-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1라운드 홈경기에서 먼저 2골을 내준 광주는 박현과 복이의 연속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2-2로 경기를 마감했다.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경기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 1점에 만족했다. 그룹 B 6위인 광주에게 강세를 보여온 대구와의 경기는 분위기 반전과 강등권 탈출을 위한 기회이다. 경기감각과 체력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지난 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스피릿 시스템 첫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지만 늘어난 경기와 이어진 강훈에 피로가 쌓인 상태



안정환

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 상주와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보이콧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강원전 이후 한 달여가량 경기를 치르지 않으면서 체력을 비축했지만 그만큼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다. 40여일 만에 홈팬들을 만나게 된 광주는 대구와의 경기를 스텝데이로 정하고 초·중·고 학생들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직원증을 지참해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상인은 입장료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명예홍보 팀장인 안정환의 팬사인회가 경기장 남문(롯데마트 광장)에서 1시간30분부터 1시간 동안(선착순 150명)진행된다. 키즈에스코트, 무료팝콘나눔행사, 응원POP받기기, 페이스페인팅, 치어리더 공연, 프리스타일 풋볼공연, 승리의 하이파이브 등의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탁구협 전무에 정현숙 “한국 탁구 미래 설계”

‘사라예보 신화’의 주역인 왕년의 여자탁구 스타 정현숙(60)씨가 대한탁구협회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현재 협회 이사과 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숙 단양군청 감독을 신임 전무이사로 뽑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초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을 최



정현숙 전무

연소이자 여성 최초 전무이사로 발탁했던 협회는 런던올림픽을 끝으로 현 전임 전무가 공석이 된 자리를 정 신임 전무에게 맡겼다. 협회는 “한국 탁구가 세대교체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협회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온 정 감독이 전무직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혼신의 서브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KDB 코리아오픈 2012 본선 2회전 이소리와 파스첵(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 이소리가 서브를 하고 있다. 이소리는 0-2로 졌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장애인체전 엇갈린 표정

市, 올림픽대표 출전에 기대  
道, 실업팀 없어 ... 짚씨 싸움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둔 광주와 전남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제32회 전국장애인체전이 10월8일 고양 등 경기도 일원에서 개막한다.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막바지 대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10월을 기다리는 광주와 전남의 표정이 다르다. 지난해 12위를 기록했던 광주는 올 시즌 한자릿수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전남은 전북과의 짚씨싸움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광주 장애인체육계에는 경사가 겹쳤다. 지난 런던 패럴림픽에서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 소속 6명의 선수 전원들이 출전하는 등 광주출신 선수들은 탁구와 양궁에서 금2, 은2, 동1의 쾌거를 이뤘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빛고을체육관에서 패럴림픽에서 선전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단 환영행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23일 치평동 전천후 게이브볼구장에서 장애인 탁구 훈련장 개소식이 열렸다.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을 비롯해 김정길, 김민규가 강준태 시장과 시범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탁구 장애인 실업팀이 출범한 이후 전용 훈련장까지 마련되면서 광주의 장애인 체육이 새 장을 맞았다.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탁구팀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광주의 핵심전력이다. 광주는 이번 체전 탁구에서만 1만2000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단체종목인 축구 우승 포인트가 9000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점수다. 막강 탁구팀과 함께 선수단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광주는 올 시즌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전남은 전북과의 최하위 싸움을 걱정하고 있다. 같은 하위권을 지키던 제주가 올 시즌 장애인 체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전력을 강화하면서 전남과 전북의 2파전이 예상된다. 16개 시·도중에서 장애인 실업팀이 없는 곳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전북 세 곳에 불과하다. 광주가 실업팀 창단과 함께 새 동력을 얻었지만 전남은 상황이 요원하다. 전문적으로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선수의 외부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육상·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남은 최하위 탈출을 목표로 전국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배드민턴·농구 ... 광주 생활체육의 중심

## 동림다목적체육관 내일 문 연다

광주 생활체육의 중심지가 될 동림다목적체육관이 문을 연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200(동림동 10-1번지)에 건립된 동림다목적체육관이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다목적체육관은 시민들의 여가체육활동 공간 마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됐으며 유소년 배드민턴교실, 농구교실, 유아놀이 체육교실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생활체육회(062-717-7370)나 동림다목적체육관

(062-714-2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관식이 끝난 후 시생활체육회는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축제”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체육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300여명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구성원은 공굴리기, 색판뒤집기, 단체줄넘기, 체육행사과 레크리에이션 행사에 참가해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